

곡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지급후 소비 2024년 대비 9848% ↑ 식당·전통시장·마트 등 업종 다양 "군민 체감형 정책 지속적인 추진" 자영업·소상공인선순환 소비 이력

곡성군이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활력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진작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이후 지역 내 소비 흐름을 분석한 결

과 11일 기준 지급률이 95%에 이르렀으며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되어 지역 내 선순환 소비로 직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곡성군이 추진한 민생활력지원금 정책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향후 유사 정책 추진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지난해 동일 기간(2024년 3월17일~4월4일)과 민생활력

지원금 지급 이후의 기간(2025년 3월 17일~4월 4일)의 곡성심정상품권을 비교한 결과 정책 상품권 환전 건수는 2261건에서 22만4932건으로 환전 금액은 2261만 원에서 약 22억4000만원으로 증가해 무려 약 99배(9848%)에 달하는 소비 증가가 확인됐다.

이번 지원금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생활 밀접 업종에 걸쳐 고르게 소비된 셈이다.

업종별 환전 금액 상위 항목은 슈퍼마켓, 주유소, 식당, 전통시장, 편의점, 약

국, 커피전문점, 의류·생활용품 소매업 순으로 이는 군민들이 생필품을 비롯해 외식, 주유, 의료, 생활 소비 전반에 지원금을 적극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활력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킨 의미 있는 사례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총회 4100만 달러 수출 달성 결의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지난 17일 전남본부에서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회장 이기우·신북농협 조합장)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광일 본부장과 이기우 회장, 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4년도 결산보고 및 2025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올해 수출 목표(목표액 4100만달러) 달성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전남도 국제협력관(팀장 서동순)을 초청해 수출 활성화와 협력방안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기우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수출환경 변화가 큰 상황이나 이에 대응하고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육 부진 등 어려운 여건에도 2년 연속 4000만불을 달성해주신 협의회 조합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수출 농가를 위해 올해에도 유관기관, 중앙본부와 적극 협력하여 수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담양군문화재단

(재)담양군문화재단은 담양 인문학가옥에서 진행되는 '마음솟터: 첫 문장 시작하기' 참가자를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음솟터: 첫 문장 시작하기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작가와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고 전문멘토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한 편의 에세이로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마음솟터: 첫 문장 시작하기는 매차시 강연, 합평, 글을 써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10일 오후 2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인문학가옥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되고 2회에 걸친 탐방과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damyangcf.or.kr)과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구의 날 '기후변화주간'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제55회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지구의 날에는 국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제고와 적극적인 기후행동(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적응역량)을 확산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래·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전 국민 기후행동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메시지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으로 이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적응역량 강화로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산강청에서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소등행사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실천한다.

25일에는 직원들의 친환경 출·퇴근(도보, 자전거 등)을 독려하고 '저탄소 식단(채식)' 운영 및 잔반 없는 날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산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환경교육기관과 협력해 유아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체험교육도 실시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후환경 교육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환경보호 실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함평군청 직원이 농업인들에게 로봇 운반차 조작법을 교육하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첨단 로봇 방제기와 운반차 등 총 15대를 농가에 보급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첨단 로봇 방제기·운반차 보급

함평군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첨단 로봇 방제기 및 로봇 운반차 총 15대를 농가에 보급

했다. 이번 사업은 무선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장비를 도입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 시간 단축과 경연비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농업기술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농업인들과의 긴밀

한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맞춤형 농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진근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로봇 장비 보급을 계기로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겠다"며 "향후 보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은 보완하고, 기술 확산과 농업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맥류 붉은 곰팡이병 적기방제 당부 함평군, 약제 살포 확산 차단

함평군이 본격적인 출수기를 앞두고 밀·보리 등 맥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붉은곰팡이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함평군은 맥류 주요 병해인 붉은곰팡이병이 고온다습한 날씨에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적기 방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붉은곰팡이병은 출수기부터 개화기(4월 중순~5월 초) 사이, 습도 90% 이상의 고온다습한 날씨가 2~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주로 발생하며, 밀과 보리 이삭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 병해는 대옥시니발레논 등 가열이나 가공에도 분해되지 않는 곰팡이독소를 생성해 사람과 가축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출수기 이전 약제 살포를 통해 병해 확산을 차단해야 하며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강우 시 방제 시점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방제 시에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전용 약제를 사용하고 유효성분과 계통이 다른 약제를 7일 간격으로 2~3회 이상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출수기 이전 약제 살포를 통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강우 시 방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에서도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병해충 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대나무 축제 연다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명에 문화관광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아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라는 주제 아래, 낮과 밤을 아우르며 머무는 즐거움이 가득한 체류형 축제로 꾸며졌다.

개막식은 5월 2일 오후 5시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이찬원, 지장민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져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올해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마련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축제의 주요 무대는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으로 개막식과 공연을 인근 향토음식관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지역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축제장 전역에는 담양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먹거리 부스, 담양 농특산물 판매관, 디지털 판매존, 전시 및 홍보 부스 등 총 150여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먹거리 부스에서는 일회용 용기 대신 세척 및 소독을 거친 대화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물며 축제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료를 환급형 상품권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죽녹원은 축제 기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무료 개장을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음 날인 5월 3일에는 '담양 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예술인 공연과

김태연의 축하 무대, 저녁 6시부터는 김경호 밴드가 출연해 열기를 더한다.

4일에는 대나무 고장의 정체성을 가득 담은 죽신제와 죽소리 경연대회가 열리며,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베베핀 공연,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마술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전남도립대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드론 제작 체험도 마련돼 선착순 70명에게는 대나무 드론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며, 저녁에는 가수 황가람의 무대로 축제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대나무 앙상블 음악회와 한국국악협회 전통국악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의 별미부터 흥겨운 공연, 다채로운 체험까지 대나무와 함께하는 낭만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깃든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